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God Makes Us Competent

고린도후서 3:4-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월 29일 설교

⁴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⁵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마데우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지요?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한 바 있는 연극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아마데우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작곡가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지요. 그런데 영화 내용을 보면 주인공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 사람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음악가입니다.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유럽 음악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로 가 활동한 사람인데 한 마디로 천재 음악가요 또 유럽 음악계를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서른여덟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장이 되었고 슈베르트, 베토벤, 리스트 이런 기라성 같은 제자를 길러낸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여섯 살 어린 또 다른 천재 모차르트에게 열등감, 질투심 이런 걸 느껴 평생 그의 앞길을 방해하며 살았다 하는 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만, 아마데우스는 라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살리에리가 볼 때 모차르트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연극이랑 영화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바로 그런 관점 때문일 겁니다. 영화는 마치 살리에리가 열등감과 질투심에 시달린 나머지 결국 모차르트를 독살한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살리에리하고 모차르트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했지만 둘이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존경하며 배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둘이 같이 작업한 작품도 있고 모차르트가 죽은 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막내아들을 제자로 거두어 훌륭한 음악가로 키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돕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했으면 연극도 망했을 거고 영화로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서로 겨루고 혈투고 짓밟으려 하는 세상 아닙니까? 공명심이나 성취감 못지않게 열등감, 질투심, 적개심, 이런 걸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장 살리에리마저 저보다 더 훌륭한 모차르트를 보고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극도의 질투를 하고 그래서 독살할 음모까지 꾸렸다 하니까 너도 나도 돈을 내고 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살리에리의 독백을 들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맞다, 맞다” 하며 손뼉을 칩니다. 저런 천재도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는데 나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지.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보니 한 마디 한 마디가 위로의 말씀입니다.

겨루는 세상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 서로 겨루는 세상입니다. 겨루는 건 곧 싸우는 것입니다. 왜 겨루고 왜 싸우니까?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내가 반에서 일 등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밤을 새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내가 일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은 이등부터 꼴찌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나 하나 즐겁지 남들에게는 괴로운 일이 바로 내가 일등 하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내 기쁨은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웃의 슬픔과 언제나 함께 가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른바 하급 가치, 곧 수준이 낮은 가치를 두고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윤리학에서 낮은 가치라 하는 것은 공유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이 하급가치입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 주어야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흔들자면 내 밑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이른바 일등이요 우승입니다. 그래서 남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싸움이 됩니다. 속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가치 말고 고상한 것도 많습니다. 이른바 고급가치, 또는 높은 가치인데 이걸 우선 독점 안 됩니다. 내가 가진다고 남이 못 가지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내

가 훌륭한 인격을 갖춘다고 해서 남이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인격이 훌륭할수록 오히려 이웃 사람이 덕을 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남이 못 배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배우면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사랑이나, 자비나, 정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좋은 말들이 다 이 고급가치에 속합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는 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면서, 가지면 가질수록 나와 너 모두에게 덕이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 고상한 가치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급가치를 두고서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인격자가 나타났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질투심을 느끼고 하겠습니까? 고급가치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급 가치를 두고서 겨루기를 한다면 그 순간 고급 가치가 낮은 가치로 타락해 버립니다. 자비라는 가치는 참 고상한 것이지만 누가 자비를 많이 베풀었는지 내기를 하는 순간 자비라는 고상한 가치가 명예나 자랑이라는 저질 가치로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모차르트도 살리에리도 아름다운 재능과 지식을 많이 가졌고 그걸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을 이용해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 한다면 그걸로 사람들의 평판이나 돈 같은 걸 차지하려고 서로 겨룬다면 그 순간 아름다움과 기쁨이라는 고상한 가치가 자랑과 탐욕이라는 더러운 가치로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런 점에서 아마데우스 같은 작품이 인기를 누리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고급가치보다 낮은 가치를 더 즐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이든 남하고 겨루어 이기고 싶고 못 이기면 화도 나고 낙심도 됩니다. 열등감에도 빠지고 이긴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왔지요? 아담 하와가 처음 지은 죄라는 게 바로 남보다 낮게 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부르지요. 처음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가 타락해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지금도 서로 이기려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가치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을 존경은 하지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런 길을 가면 말립니다. 우리 시대는 더합니다. 낮은 가치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돈이 가장 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많이 배우고 또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낀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훌륭한 학문 같은 건 아무 소용없고 월급 많은 교수 자리를 얻어야 사람들이 잘 했다 합니다. 전에는 바로 살다가 고생하는 사람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바로 살고 그걸 인정받고 그래서 월급이든 책 인세든 돈도 많이 벌어야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 조금 남아있는 고급 가치마저 이렇게 하급 가치로 치장을 해 타락시켜야 속이 시원한 게 현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는 우리도 이 세상에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들이야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 눈에 보이는 걸로 경쟁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우리마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다보니 우리도 이웃을 볼 때 인격으로 안 보이고 물건으로 보입니다. 나도 깨끗하고 괜찮은 옷을 입었으면서 다른 사람 옷에 붙은 상표에 자꾸 눈길이 가고 밤이면 이슬 가려줄 아늑한 집이 있으면서 크기 따지고 값 따지고 하면서 낮은 가치에 매달립니다. 나도 고정 수입이 있는 직장이 있고 열심히 일해 먹고살면서 남들이 기준 삼는 돈으로 나하고 남을 비교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가장 귀한 걸 알았다 하는 우리가 그 귀한 걸 버리고 천한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값진 골동품을 귀한 줄 모르고 옛 바퀴 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 일등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지만 그게 우리 사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얻었다고 뿔 듯이 좋아하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그런 것 못 얻었다고 한숨 쉬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중심” 사상입니다. 뭐가 소중한가,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주님이 살아 계실 때 곁에 따라다니며

주님께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우기는커녕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다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 넣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에서 복음의 비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 하였습니다. 만족케 한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추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시비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바울을 사도로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사도로 갈 것을 명령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도로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어 주셨다. 이게 바울의 평생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전 15:10). 무슨 은혜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유자격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후 1:12). 바울은 자기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보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결국 자격을 못 갖춘 게 더 유익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자격을 못 갖추었으니 하나님 말고 기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격 문제로 시비하니 하나님 은혜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면에서는 사실 내세울 것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훨씬 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너보다 낫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한 사도직을 옛 바뀐 먹는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본인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잘못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람만 볼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나오면 기분이 좋고 또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못하다 싶으면 기분이 안 좋지요. 열등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고 질투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안 보이니 그렇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난 거니 기분이 좋고, 잘 안 되면 내가 못한 거니 기분이 나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하니 남보다 잘할 가능성도 사실 크지요. 그렇지만 남보다 잘 하는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 내 보람의 근거,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급 가치가 아니지요. 많이 배우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걸로 경쟁을 하고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가면 더 심합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가 게으름을 피우다 좋은 학교에 못 갔다면 잘못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보다 점수 몇 점 높다고, 석차 몇 등 앞섰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학생으로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바라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좋은 학교 갔다는 걸 자랑하려고 거기 매달리는 것은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남보다 열심히 일해 그럴 수도 있지만 나쁜 방법을 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사업 잘 되는 게 사람에게는 멋져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는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 좋아하는 대박이 터져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우리 직장은 남하고 경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 이웃은 적게 벌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좀 시원찮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만족케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뜻

이민 일세대로 살면서 그런 꿈들 많이 꾸시지요. 나는 세탁소 하고 야채가게 하고 손톱가게 하면서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가 되어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고생도 보람이 있다. 부모가 자녀 위해 희생하는 건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내 만족의 기준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그렇고 내 자녀가 고생 안 하고 사는 것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그렇습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그건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의 앞날 챙기기 전에 지금의 내 삶에서도 앞으로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이민 일세들이 하는 일은 대개 몸이 힘들지요. 고생하는 데 비하면 수입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생, 적은 수입은 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만족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요. 내가 나를 만족케 한다면 지금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족케 하신다면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나쁜든 거기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의 용어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콜링, 한자로 소명, 이걸 그냥 직업이라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이 가진 하급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가치에 사로잡혀 보람도 못 느끼고 억지로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일이 편해지는 것도, 보수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뜻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뜻은 다 잃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많이 가지면 거드름을 피우고 못 가지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살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뜻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지금 내 삶의 참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일

영동한 일로 경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세상천지가 모차르트로 뒤덮여 있습니다. 속이 상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일등이 되면 풀릴 것 같습니까? 하나에서 흑 일등 해도 일등 못하는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낮은 가치에서 이겼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면 말로는 하나님 영광 어찌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탐욕을 추구합니다. 요즘은 그걸 고쳐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또 그걸 부추깁니다. 교회가 달리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한다면 예수 안 믿는 일본이 부자가 된 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지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불교 신자라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풋볼에서 팀 티보우가 경기에서 이겼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많던데 티보우 팀이 지면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하고 경쟁하고 싸워 일등을 한 다음 잠시 맛볼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일등 안 하고도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벌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여기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합격!” 하고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경쟁하지 말라 한다고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지요.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셨는데 우리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지요. 다만 무엇을 하든 지금 내 삶을 만족케 하시고 지금 나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낮은 가치로 성공했다고 대접해서도 안 되겠고 그런 것 좀 못 가졌다고 괘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졌다고 괘시하거나 안 가진 걸 무슨 벼슬처럼 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바로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 가족, 직장 동료, 내 고객들,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었느냐, 이런 걸 서로 묻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테우스

하나님이 만족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 그런 보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

로 살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맺으면 맺을수록 나도 좋고 우리 식구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직장동료도 좋은 그런 가치입니다. 고급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일등 할 수 있는 참 좋은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니 예수 안 믿는 이웃도 내가 맺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연극 제목이 아마데우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참 기막힌 제목입니다. 살리에리가 보기에는 모차르트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 같았겠지요. 자기보다 어린데 재능도 많고 자기는 피땀 흘려 노력해 겨우 작품이 나오는데 모차르트는 도대체 재능을 얼마나 타고났는지 장난하듯 쓱쓱 만들어도 완벽한 대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면 모차르트도 살리에리도 다 아마데우스입니다. 둘 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시다. 둘 다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거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족케 하시는 줄 아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바울은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인 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세울 게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고급 가치를 남보다 더 가졌다고 으스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거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것보다 오래 가는 것, 영원한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다 아마데우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일 가실 거지요? 하는 일은 똑같겠지만 마음은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누가 나보다 잘 나가도 기죽지 말고, 못해도 놀리지 말고, 누가 나를 놀려도 화내지 말고 일이 잘 안 돼도 짜증 내지 말고,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저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또 신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권수경 목사)